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11월호



늪음과 죽음

(코헬 12,1-7)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7장 이 세상 덧없이 1절과 2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주님, 저희에게 오소서!
- 생기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코헬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 맞미달이문은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
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

다닌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위령성월은 죽음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주위의 죽음이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늙어가면서 고민이 하나둘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젊음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은 젊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통 ‘나’ 만 보이고 ‘너’ 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 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 를 넘어선 ‘하느님’ 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성취했다 여겨도 무언가 허전합니다.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고 입가에는 쓴 맛이 맴돕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란 다름 아닌 ‘너’를 잊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하느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소중해집니다.

아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을 자신의 누이로 불렀습니다.

그런 늙음과 죽음이라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새록새록 생기를 찾을 것이고

시들어진 꽃은 다시 활짝 필 것입니다.

막혀버렸던 은총의 통로가 어느 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마침성가로 가톨릭 성가 27장 3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자동차에 비치한 성물은 사고를 막아주나요?



가톨릭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성화나 성상을 모시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의 바탕에는 신자들이 성상을 대할 때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분들은 아니지만 늘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님, 성인 성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흠숭과 공경을 쉽고도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매우 크지만 이따금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톨릭 신자들은 우상숭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나 지적은 분명히 우리 신자들의 성상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상이나 성물을 대할 때에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상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이 성물이나 성상들이 때로는 어떤 영험한 효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몸에 지니거나 자동차에 걸어두면서 그 효험을 기대하면 그러한 행위는 분명히 일종의 준마술적 행위로서 하느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목주나 십자고상을 걸어두는 이유가 그 성물들 자체가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게 될 온갖 위험들에서 보호해 주리라는 생각 때문이라면 이는 분명 미신행위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물들을 통해서 보다 용이하게 주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 운전할 때에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운전 중에 과속이나 위험한 행위 또는 지나친 짜증이나 욕설 등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 성지를 지키는 해미반원들

저희 사봉 해미반은 25세대로서 남자 26명 여자 3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당구역 중에서는 인원이 꽤 많은 반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든을 훌쩍 넘긴 연세 드신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봉 공소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반원들 한사람 한사람은 언제나 내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과 혼자 사는 분들, 새 영세자들에게는 더욱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며, 자신의 일처럼 아끼고 도와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반입니다

사봉공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공소에 성지순례나 방문객이 오면 기쁘게 달려 나가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주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뒷정리와 공소 주변의 청소를 하며 모든 일에 서로 돕고 있습니다.

저희 해미반은 소공동체 모임을 매월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 말씀 나누기를 통해 일상에서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접목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신앙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봉성지 바로 밑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한 자매님은 치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많은 학생들이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돌아갈 때엔 꼭 성지를 돌아보라고 한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 신앙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알게 되고 이는 곧 간접적인 선교를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사봉 해미반은 선조들의 굳건한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 하느님의 정의의 빛이 우리를 밝혀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파이팅을 외쳐 봅니다.



< 해미반원들 >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